"현등사 사리구 내가 훔쳤다"

공주교도소 수감 서모씨 본지 인터뷰서 주장

가평 현등사(주지 초격)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리구 반환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등사 사리구를 본인이 훔쳐서 판매한 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사리구는 명백하게 현등사 소유이며, 삼성문화재단의 장물 구입을 증명하는게 되어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문화재법에는 장물 문화재를 구입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서모(46)씨는 11월 24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0~81년에 나를 포함 4명이 현등사에 가서 3층 석탑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훔쳤다"며 "그중 현등사 사리구가 있었고 사리구를 비롯한 문화재들을 중간 판매상 정모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현등사 3층 석탑 주위를 삼각 크레인으로 고정시켜 놓은 뒤 유압기로 탑을 들어 올려 그 안에 있던 문화재들을 꺼냈다"고 설명한 서씨는 "사리구는 은제로 돼 있었으며 사리구 표면에 '현등사'라는 글자가 음각돼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서씨는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현등사 사리구가 삼성문화재단측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현등사의 본사인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서씨의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측이 장물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리구는 현등사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서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신태 문화재청 문화재사범 단속반장은 "서씨의 발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등사는 지난 8월 22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사리 2과와 사리를 보관한 은제 원통형 사리함, 사리를 담는 수정 사리호 등 3종의 불교유물은 사찰 내 3층 석탑에서 나온 것인 만큼 사찰에 반환해야 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삼성문화재단이 반환을 거부해 민사조정이 결렬됐다.

공주=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천성산 또 표류하나

정부 "조사결과 문제없다" 공사 재개
대책위 "공식 보고서 안나와…약속 깼다"

천성산 문제가 또다시 표류하는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청와대 측이 환경조사와 관련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천성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24일 조선일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환경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30일 공사를 속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같은 날 "지율 스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조사 결과가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성산 대책위는 약속을 깬 행위라며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재철 간사는 "아직 공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일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간사는 또 "단식 후유증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지율 스님에 대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과연 정부가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천성산 대책위는 12월 6일 부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남기명 토목처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기자가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냈다"며 사과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3단독 장경식 판사는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지율 스님의 신병확보 차원에서 지난 3월 1차 영장 발부에 이어 10월 13일 2차 구금영장을 발부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유철주 기자

익명의 불자 독지가 금강대에 1억원 쾌척

칠곡 삼명사 신도로 알려진 익명의 독지가가 금강대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삼명사 주지 성공 스님은 "장학금은 삼명사의 독실한 신도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간부를 역임했던 부친 이동영 불자(3년 전 작고)의 유언에 따라 아들 이씨가 기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의 날' 행사는 생명나눔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로 회향됐다.

생명나눔 두배이상 늘었다

2005생명의날 행사 개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2005 생명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관 스님은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전년보다 2배 이상 각막 · 시신기증 등의 장기기증희망신청자를 받는 성과를 올렸다.

김강진 기자

재가연대, 대중화 박차 총회서 내년사업 결의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이하 재가연대)가 2006년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한 대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재가연대는 11월 26일 우리함께 회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재가불자 108인 종책모니터 그룹 결성 △청소년 종교문화제 개최 △한국참여불교대회 조직위 구성 등을 담은 200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또 우리함께회관 2층에 'NGO 교육센터'를 개관해 각종 불교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02)2278-3417

유철주 기자

불교계 황우석 교수 격려 이어져

황교수 수도권 사찰서 아침 · 저녁 108배 수행

부산불교복지관협, 지지선언

11월 24일 공식 기자회견 이후 칩거에 들어간 황우석 교수가 12월 2일 현재 수도권 지역의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교수와 돈독한 인연을 맺어온 계성 스님(대구 유가사 주지)은 "황 교수는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면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은 또 "황 교수의 의도와 다르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다"며 "불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황 교수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계 안팎에서 황 교수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11월 25일 '황우석 교수를 위한 한국재가불자들의 모임'이 외호를 선언한데 이어 21개 복지기관으로 구성된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도 황 교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혜총 스님은 "불치병 환자들과 중증 장애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황 교수의 업적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들과 함께 황 교수 지원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자 네티즌들의 격려도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www.laybuddhist.net) 게시판에 글을 올린 ID길상화 네티즌은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기도드린다"고 전했으며 ID법향은 "과학과 윤리의 벽을 넘어 자유자재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 ID강명철은 "부처님의 보살행과 자비심을 늘 실천하시는 황 교수님, 힘내시고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유철주 기자

내원암 담당판사 "소송제기 의문"

친일파 후손 땅찾기소송 현장검증 실시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의 내원암 땅찾기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12월 중으로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담당 판사가 소송 제기에 대한 의문을 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30일 내원암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강민구 부장판사는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으로부터 사찰 현황을 듣고 "현장을 직접 보니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강 부장판사는 또 "원고측 관계자들이 직접 와서 봤으면 소송제기를 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최근 연이은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 소송이 패소로 끝나고 있는 만큼 내원암 소송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원암 소송의 결심 공판은 12월 9일 열리며 올해 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친일파재산환수에 관한특별법이 12월 7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화재피해 흥복사 목조삼존불 좌상
문화재지정 해제 싸고 갈등

지난 10월 3일 발생한 김제 흥복사 대웅전 화재로 손상을 입은 목조삼존불좌상(전북유형문화재181호)의 문화재지정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조계종과 전라북도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과 흥복사(주지 우진)는 전라북도의 지정해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문화재지정 해제는 최후의 행정조치인 만큼 목조삼존불좌상의 지정해제는 복구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유철 문화재전문위원은 "10월4일과 28일 두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보존관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전라북도가 복원 노력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12월 7일 열릴 문화재위원회에서 삼존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면 이를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11월 24일 전라북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훼손된 삼존불좌상 복구는 문화재보존 · 복구에 있어 중요 사례가 될 것 △지정해제로 인해 삼존불좌상 보존 · 복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지정해제 진행 유보를 요청했다.

박익순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대회 토론·유공자 공로패 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2월 14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2005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불교사회복지전문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이어 2부 축하 기념법회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치사,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의 축사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공로패 수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4대 종교 이웃돕기 공연 1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은 12월 15일 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오색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종단의 창작시와 연극, 합창 등의 공연이 선보일 예정이며, 부대행사로는 성직자들의 활동을 담은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이날 수익금 전액은 국내 종교복지시설과 북한 동포 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동아시아불교학회 발족 9일 부산서 창립법회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불교학회가 창립된다.

불교학을 비롯해 불교문화 전반에 대해 연구하게 될 동아시아불교학회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후원하고 장성욱 교수를 비롯해 동의대 박문현 교수, 부산대 조명제 강사와 일본, 중국 등의 불교학자들이 참여한다.

동아시아불교학회 창립을 기념해 9일 오후 2시 부산 고심정사에서는 창립법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051)464-0068

박익순 기자

追 老天 月下 大宗師 2주기 추모재 募

<월하대종사>

月下 大宗師님의 茶毘式이 奉行 되던 날 밤,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生 · 死가 하나임을 設해 주시던 일곱줄기 瑞光이 선명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2年이란 時間이 지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모의 정을 올리고자 하니 四部大衆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불기 2549년 11월 25일

● 일 시 : 12월 11일(음력 11월 10일) 오전10시
●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전화 : (055)382-7182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축산문도회 회원일동

방장 초 우
주지 현 문 합장

축산(구하) 문도회 명단

월은 월정 월주 월인 추봉 호경 혜각 월저 남호 월제 평곡 만성 경우 월남 월봉 월국
월면 보해 월륜 월성 재용 월공 월파 중광 중래 의천 지강 선우 청하 홍법 영철 초우
서주 현파 도열 목산 태응 상우 성파 운하 법초 종진 운성 성림 진철 혜남 현문 태봉
산옹 천진 철환 청운 상수 법진 법혜 법조 영도 지명 능연 성기 덕암 수안 일봉 법산
법천 현근 여산 동원 용문 현오 회암 가열 기후 지원 현초 중선 정산 대원 호성 신행
양일 석봉 덕수 진오 일현 자하 만성 종일 항조 목주 우인 성오 수원 동하 경담 자성
양진 영실 성윤 양우 영노 해원 관우 오심 만천 성현 남천 성본 노우 증도 증악 지운
방원 해중석 현광 지수 자고 기현 구성 해두 진명 오성 이지 삼해 이수 병천 성구
종원 기호 성열 성화 성법 양우 벽해 가열 소암 정우 재경 상경 영재 지용 현근 상운
진성 도응 문성 현기 현원 혜오 혜용 재진 도안 향과 도천 남현 삼경 동주 영수 지운
본원 준수 범해 정안 효선 원근 묘경 묘일 묘원 묘영 보문 묘행 묘산 양관 양행 보안
선준 묘신 호암 재원 재문 재홍 보화 보안 보응 보각 보광 명신 명일 명안 지문 도원
도웅 원천 양현 진산 장해 일승 진오 여해 영화 영월 영도 영봉 영경 석산 석담 수연
동륜 종원 등운 혜원 혜장 홍선 보덕 남도 남곡 남주 신광 정학 원정 원진 혜우 원묵
원범 정주 시광 명오 신화 원무 선운 마벽 선오 진성 상원 덕진 덕우 도문 덕월 덕문
시공 진공 우보 우학 보덕 남월 동진 효범 대안 조월 삼석 명덕 매물 광산 광석 시원
만행 대운 정로 증관 무진안 우진 범철 혜초 법진 정헌 태암 우암 소암 중암 성일
주봉 임성 유경 안치 동우 만오 만영 만초 진범 진목 진응 진명 진통 진무 현담 일과
일성 지범 지상 지봉 범준 보명 보원 지석 지성 지해 지철 범용 남곡 혜원 혜일 혜봉
혜안 혜월 혜안 혜종 혜광 혜인 무위 정인 정원 정무 설문 설운 영봉 영곡 영명 영선
광우 다원 성무 초중 혜완 선근 선행 선일 선오 선혜 선업 선열 선석 선원 선림 선종
선보 종봉 규봉 종선 종은 서상 서호 용은 서중 서초 도산 도행 도유 도국 현고 도선
만제 도연 도설 무심 도계 도증 자원 자금 혜성 혜원 영봉 영곡 영명 만일 각원 무유
각광 각현 무영 성원 성법 각성 각문 성지 성화 성전 각평 성안 성민 성밀 각심 성념
성재 성륜 각림 성래 원행 무천 신행 지무 무중 도피안 선철 선각 일법 세진 수운
자견 보인 도영 동일 동수 동명 명조 일법 진성 하유 한수 범우 랑림 용성 용주 용린
용제 용봉 용파 지성 만성 효성 종백 지묵 풍운 삼재 지선

축산승가회
오심 원진 지범 묘경 용은 현담 선혜 남곡 지봉 지수 선오 보화 태암 서호 대안 각평
도국 삼해 원범 보안 양현 주봉 매물 진성 청우 영랑 양관 만오 정무 남도 광석 각림
오성 도진 만초 무위 수연 각현 무적 자고 혜봉 지상 수운 성화 지욱 진범 <무순>

※ 축산문도회원은 수첩제작용 사진을 필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